

# 해남군, 농산물 다품목 유통 확대 소농가 판로 도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상생 협약 2022년부터 2년 5억여원 판매 초당옥수수·절임배추·감자 등 소량판매 신규 시장 개척 성과

해남군이 지역농산물의 다품목 유통 확대를 꾀해 소농가 판로 지원에 힘쓰고 있다.

해남군이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해남농산물 안정적 공급과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강서시장을 통해 첫해 2900만원의 납품을 시작으로 2년간 5억3800만원의 해남농산물을 판매했다.

대부분 납품 물량이 소규모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주문으로 평소 판로를 찾기

어려워 중간 상인에게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던 소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큰 호응을 얻었다.

판매 품목 또한 초당옥수수, 마늘, 홍고추, 쪽파, 절임배추, 감자, 양파 등 다양해 다품목 소량판매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판로 확보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업무협약의 연장과 공고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업무협약 연장 체결로 해남농산물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 소규모로 농사를 하는 청년농과 고령농의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영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해남 농산물은 강서시장에서 급격하게



해남군이 지난달 2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지역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해남군 제공**

성장세를 보이는 인기 지역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해남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게 되어 강서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982년

설립돼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양곡시장 등을 운영, 농산물을 유통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농산물유통공사로 지난 2022년 도·농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해남군과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야(夜) 금야금 주말 야시장' 인기 완도군, 전통시장 활성화 나서

완도군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완도 전통시장 야(夜) 금야금 주말 야시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10월 19~20일, 지난 1일~2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야시장 기간 동안 3000여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전통시장 내 상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말 야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은 물론 군민과 관광객에게 주말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가족 게임, 노래자랑, 경품 이벤트 등이 진행돼 참여도가 높고 반응이 뜨거웠다.

완도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야시장이 완도를 대표하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양 선박 사고 발생시 원활한 대응 대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완도군 관계자들이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 참가해 해안 방제 연습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안전한국 훈련

완도군이 지난달 31일 '2024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훈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양 선박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응·대비 체제를 구축하고자 토론과 현장 훈련으로 진행됐다.

현장 훈련은 신지면 해역에서 낚시 어선과 유조선의 충돌로 화재 발생 및 유조선 화물창 파공으로 저유량 유출과 인명

피해 상황을 구현하여 진행했다.

먼저 사고 접수 후 관계 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초기 대응, 재난 현장에서는 인명 구조, 화재 진압, 오염 방지 수습, 복구가 이뤄졌다.

이날 훈련에는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소방서, 해양환경공단 완도구조대, 완도의용소방대, 완도자율방재단,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200여 명이 참

여했다.

군민의 재난 대응 훈련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체험단을 구성, 훈련에 함께 했다.

훈련 현장에는 완도군의 행정선과 드론, 완도해경 519함, 연안 구조정, 헬기, 구급차 등 장비 25대가 동원됐다.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확고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 해남군,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무료 또는 50% 지원

해남군은 건강 고위험군인 65세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바람에 머리카락만 날려도 쓰리고, 피부에 뾰루지 닿으면 불에 덴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등 환자의 삶의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다.

질병에 걸리기 전에 백신 접종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8~10배 높고 완치 후에도 신경통 등 합병증이 지속될 수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방접종 대상은 65세(1959년생)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료 접종이며 그 외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은 비용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총 2회 접종하며 1회당 접종 비용은 8만7500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지원 백신은 예방효과가 97% 이상으로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도 접종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 해남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강화

###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해남군은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해 축산차량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등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를 축산농가에 고시했다.

관내 60여개소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보완하고 있으며 방역차량 2대와 광역방제기 1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소독할 예정이다.

가금농장 내 AI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 축사 출입 시장화갈아신기, 축산전용 작업복(또는

방역복) 착용해야 하며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차단망, 덮개 등을 설치, 구서작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강원도 동해시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고병원성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가금농장 관계자께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수평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 증상이 발견될 시 지체없이 방역당국 신고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인구감소 대응 주소 갖기 캠페인 영암군, 전입자 발굴 등

영암군이 지난 1일 군청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영암에 주소 갖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5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는 영암군의 '인구 5만 지키기' 정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영암군 공직자들은 정례조회에서 '영암에 주소 갖기 캠페인' 다함께 참여합시다' 문구가 적힌 손팸집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인구 지키기의 의지를 다졌다.

캠페인 이외에도 영암군은 인구 5만명을 사수하기 위해 실거주 미 전입자 발굴 및 전입, 기업·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주소 갖기, 전입 홍보 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영암군 공직자들의 전입을 추천하고 향후 내 고향 주소 갖기도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 기업과 기관 등을 방문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알리고, 영암 주소 갖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장행정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전입신고 시 임신, 출산,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학생 교육과 청년장착, 귀농·귀촌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지역·기업·단체와 협력해 영암 주소 갖기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목포시, 공중시설 금연구역 점검 간접흡연 예방·금연환경 조성

목포시가 지난달 29일 간접흡연 예방과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점검'을 목포시와 인접한 무안군, 영암군, 도 담당자 및 금연지도원과 함께 실시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과 목포시 조례에 따른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공공청사, 교육시설,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게임제공업소, 금연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상태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의 경우 5만원)이 부과되며, 적발 대상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 후 과태료 감경 및 면제가 가능하다.

합동점검 실시 이후 오는 29일까지 목포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자체점검을 진행 중이다.

목포시 보건소관계자는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다"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